**[SOLE(쏠), 26일 윤미래 ‘선물’ 리메이크 음원 발매]**

**아티스트 참고자료**

**SOLE(쏠):** SOLE (쏠)은 대한민국의 프로듀서이자 가수이다. 한국과 미국의 음악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프로듀싱 팀인 Devine Channel의 멤버인 SOLE (쏠)은 2017년 신비한 매력과 특유의 바이브를 멜로디에 녹인 이지 리스닝 곡 'RIDE'를 발표하면서 데뷔했다. 2019년 6월에는 다양한 사랑의 형태에 대해 던지는 물음표를 담은 첫 미니앨범 [How we live]를 발매하면서 독특한 음악적 개성을 각인시켰으며 이후 싱글 'haPPiness', '음음', '왜', '곁에 있어줘' 등과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박선주:** 박선주는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프로듀서, 보컬 트레이너이다. 1989년 MBC "강변가요제"에서 발라드 넘버 '귀로'를 통해 은상을 받으면서 음악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90년 첫 번째 정규 앨범 [하루 이틀 그리고...]를 통해 가요계에 정식 데뷔했다. 이 앨범에서 조규찬과 함께 부른 '소중한 너'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90년대 초반 라디오에서 꾸준히 불렀으며, 듀엣의 명곡으로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았다. 이후 김범수의 보컬 트레이너를 맡은 것으로 유명세를 치르면서 작곡가, 트레이너, 교수 등 후진 양성에 힘썼으며 2006년 10년 만의 정규 앨범 [A4rism]에 수록한 김범수와의 듀엣곡 '남과 여'로 주목받았다. 최근까지 음악 예능 프로그램 출연 및 오디션 프로그램의 마스터로 출연하면서 전설적인 보컬 트레이너이자 뮤지션으로 인정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이래언:** 이래언은 대한민국의 작곡가 이자 프로듀서로 황치열, 정동하, 황인욱 등의 프로듀서로 활동했다. 대표작으로 황치열의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순순희의 ‘서면역에서’, 어쿠스틱 콜라보의 ‘너무 보고싶어’를 리메이크한 전상근의 ‘너무 보고싶어’, izi의 ‘응급실’을 리메이크한 황인욱의 ‘응급실 (2021)’이 있다.

**사운드리퍼블리카 개요**

주식회사 사운드리퍼블리카 (공동대표 노건식, 김태윤)는 세계 각국의 음악을 전 세계로 유통/배급하고 있는 글로벌 음원 유통사이다. 세계 180여 개국의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들을 통하여 음원을 유통하고 있으며, 유통신청부터 정산까지 원스탑으로 가능한 종합 온라인 음원 배급 플랫폼 개발을 통해 전 세계 아티스트와 음악회사에 쉽고 빠른 유통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아티스트와 레이블의 음원 자료 준비를 돕는 업로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판매현황 등 통계를 제공하고, 간편한 지급이 가능한 정산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

출처: 사운드리퍼블리카

<https://www.soundrepublica.com/>